



문서번호 : 26-03-민생위-0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제 목 : [민생위][공동 성명] 백종원 더본코리아 국회 을지로위원회 분쟁조정 권고안 거부 규탄

전송일자 : 2026. 3. 9.(목)

전송매수 : 총 4매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동 성명

**백종원 더본코리아 국회 을지로위원회 분쟁조정 권고안
거부 규탄!**

- 반복되는 조정 거부와 방송 복귀를 위한 시간 벌기용 조정 참여
- 조정 중에도 이어진 전방위 압박과 브랜드 실패의 방증
- '말로만 상생'은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응답하라

**발 신 :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교육가맹지사연합회·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전국치킨가맹점주협의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전국5개사제작사서비스연합회(자동차)·공차코리아가맹점주협의회·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네이처리퍼블리가맹점주협의회·노브랜드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떡참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로이드밤헤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만쿠라만뽕당가맹점주협의회·미샤가맹점주협의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반올림피자가맹점주협의회·배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주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세라젠포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센스학러닝센터지사협의회·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에그드랍가맹점주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이차돌가맹점주협의회·잉글리시에그지사장협의회·전국던킨가맹점주협의회·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전국버거킹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주협의회·전국BBQ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청년피자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쿠우쿠우가맹점주협의회·쿠쿠점주협의회·퀴즈노스점주협의회·터치카페가맹점주협의회·투썸플레이스가맹점주대표자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푸라닭치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주협의회·피자스쿨가맹점주협의회·피자에땅

반복되는 조정 거부와 방송 복귀를 위한 시간 벌기용 조정 참여

(주)더본코리아(이하 '더본')는 백종원 대표의 대중적 인지도를 앞세워 가맹사업을 급격히 확장해 왔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장 이면에는 가맹본부 매출이 9배 성장할 동안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56%나 감소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되었다(2010년~2023년). 연돈볼카츠 점주들 역시 본사의 허위·과장된 매출 약속을 믿고 생업을 걸었으나, 돌아온 것은 적자와 폐업의 공포뿐이었다.

점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 12월 3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였지만, 더본이 경기도 측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되었다. 이후 백 대표는 여러 사회적 논란 속에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논란을 겪었고, 스스로 방송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MBC '남극의 셰프'로 복귀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12월 15일, 더본은 차기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2'와 '백사장3'의 방영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2026년 3월 4일, 더본이 을지로위원회의 최종 조정권고안마저 거부함으로써 이 모든 과정이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닌, 오로지 방송 복귀를 위한 '시간 벌기용 쇼'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사건 진행 경과>

2022.상반기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본격 시작
2024.06. (주)더본코리아 경기도 분쟁조정안 거부
2024.06.18.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등 (주)더본코리아 공정위신고
2024.11.06. (주)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
2025.10.27. 백종원 대표 국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2025.11.17. 백종원 대표 MBC '남극의 셰프'로 방송 복귀
2025.11.21. '연돈볼카츠' '연돈튀김덮밥'으로 가맹사업 변경
2025.12.15. (주)더본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분쟁조정 참여로 분쟁조정 시작
2025.12.16.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2' 방영
2026.01. (주)더본코리아 가맹점주들 통해 김재환 PD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6.02.03. (주)더본코리아 유튜버 및 커뮤니티 유저 대상 법적조치 진행 예고
2026.02.09. (주)더본코리아 김재환 PD 상대 법적 대응 예고
2026.02.10. TVN '백사장3' 방영
2026.03.04. (주)더본코리아 을지로위원회 조정권고안 거부
2026.03.09. 현재 '연돈볼카츠' 간판 일반 가맹점 매장 3개만 잔존

조정 중에도 이어진 전방위 압박과 브랜드 실패의 방증

더본은 조정 절차에 참여하면서도 뒤로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속하였다. 비판적인 유튜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도하고, 점주들 간의 대립을 부추기는 등 사태의 본질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갔다. 특히 가맹본부 경영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부 점주들의 소송 상황을 두고 “뿌듯했다”는 취지의 소회를 밝힌 것은,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본사가 오히려 분열을 방조하고 있음을 드러낸 부적절한 처사다.

본사는 그간 문제를 제기하는 점주들을 향해 "점주 역량이 문제"라거나, "나머지 매장 점주들은 신났어요"라는 식의 표현으로 피해 점주들의 절규를 조롱하고 본질을 흐려왔다. 특히 볼카츠(멘치카츠)를 주력으로 하던 ‘연돈볼카츠’ 브랜드를 도시락 전문 브랜드인 ‘연돈튀김덮밥’으로 리브랜딩한 것은 사실상 기존 브랜드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매장 대다수가 폐점하거나 간판을 바꿔 달아야만 하는 작금의 상황은 가맹본부의 경영 실패를 증명하며, 더본은 이름 지우기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며 점주들에게 또 다른 희망 고문을 강요하고 있다.

‘말로만 상생’은 그만두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응답하라

우리는 분쟁조정을 두 번이나 스스로 걷어찬 더본의 무책임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본코리아가 외치는 ‘상생’은 위기 모면을 위한 수사일 뿐, 실제로는 점주들의 고통을 짜내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진정성 없는 기만적 태도를 중단하라.

을지로위 조정 협의 참여가 ‘흑백요리사2’, ‘백사장3’ 등 방송 복귀를 위한 시간 벌기였다면, 이는 점주와 국회를 동시에 기만한 행위다.

이이제이식 갈등 조장을 중단하라.

본사는 해결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점주 간 분쟁을 유도하고 비판 세력을 압박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식 분열 전략을 즉각 중단하라.

실질적 상생을 실천하라.

이제 ‘말로만 상생’을 외치지 마라. 마케팅에만 집중하지 말고 가맹사업 구조 개선을 통해 점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개선책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주)더본코리아와 백종원 대표에게 촉구한다!

더본은 을지로위원회 조정안 거부에 대해 사과하고, 생존 위기에 처한 가맹점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상생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우리는 (주)더본코리아가 가맹본부로서의 책임을 다할 때까지 피해 점주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6년 3월 9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수리·용역수탁사업자협의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